



유기상

『학력사항』

- 고창동초등학교 졸업
- 고창중학교 졸업
- 고창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일본가고시마대학원 법학석사(지방자치정책 전공)
- 전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박사)

『경력사항』

- 현) 민선 7기(제47대) 고창군수 재직 중
-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
- 익산시 부시장
- 전라북도 문화관광국장, 공공기관이전지원단장, 혁신도시추진단장
- 전주시 문화영상산업국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관광과장
- 전라북도 문화계장, 정책개발계장, 국제교류계장, 심사계장
- 총무처 근무(행정사무관)
- 행정고등고시(일반행정) 제32회 합격
- 노동부 근무(7급공채)
- 정보통신부 근무(9급공채, 8급)

I. 붓을 일으키며

어린시절, 시골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놀곤 했지. 낚시나 투망질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기병을 놓아 물고기를 유인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도회지나 읍내바닥 사는 애들이 놀러와서 하는 것이었다. 그런 도구하는 없는 촌놈은 맨손과 구멍난 고무신짝과 뚝심을 밑천으로 늘 먹고 품어서 고기를 잡았다. 흐르는 물목이 좁은 곳을 골라 흙으로 막아 놓고 고무신짝으로 그 속의 물을 다 밖으로 퍼내면, 영락없이 고기만 남아 우리 것이 되곤했다.

미련해 보아는 방법이지만 고기잡는 도구가 없는 내겐 가장 확실하면서도 유일한 방법이라도 방법이였다.

II. 여는 마당

1. 돌아본 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하게 흘렀다. 내가 고시계의 합격기를 처음 읽기 시작한 후에도...

나이 서른 넷에 아홉살난 딸과 네살박이 아들과 아내를 거느린 가장, 현재 노동부에 몸담은 현직 공무원-열심히 성실히 사는 토종 한국인.

이게 오늘날 내가 가진 전부다.

이제 삶의 한 대목에 매듭 하나를 짓고, 다시 새로운 출발의 길목에 서서 정신없이

오직 한 길로만 치달아 살아오던 길을 비켜서서 되돌아 본다.

전라도 고창에서 용고개택네에 둘째 아들로 태어나 그곳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모님을 모시고 이웃과의 정으로 컸던 어린시절이지만 껍이나 가난한 마음이었다. 조국근대화가 이뤄져 중진국반열에 들어섰다면 70년대 중반에도 불알친구 모두는 밥을 찾아 서울로 갔어도 유난히 근검하시고 자식을 학교 보내려고 나무장사, 채소장사를 마다하지 않으시던 어머니의 희생으로 고등학교를 나왔다. 책주고 밥주고 똑같은 공부시간도 주는 학교에서는 누구와도 겨룰 수 있다고 육사에 세번을 응시했는데 내 생애 최초로 좌절을 맛보았다. 언제나 최종합격자 명단에선 내 이름은 빠졌다. 공짜로 대학 다니겠다고 지방대학 단과대 수석으로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등록금이외의 앞가림이 막막해 한 학기의 캠퍼스생활을 끝으로 무작정 상경하였다. 촌놈이 서울에서 발 붙이지나 날씨가 좋으면 장충단공원 아이스크림 장사, 날 곳으면 방산시장 비닐우산장사, 맥주홀 웨이터, 신문보급소 감독, 버스간 행사 등 세상 밑바닥을 두루 거쳤는데 그때 느낀 세상의 밤과 낮은 왜그리 다르던지, 공부하기에는 안정된 일자리가 좋을 듯하여 가장 쉬운 길인 9급 공무원이 되어 공무원에 입문했다.

말단 소총분대장으로 군복무를 마친 후 복직하여 불광동우체국에 근무하면서 7급공무원시험을 준비하였고,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에 입학하여 한땀한 학업도 겸하게 되어 신이 났었다. 당시에 행정학과를 택한 것은 모교의 학과가 적어 선택의 폭이 좁았고, 행정에 몸담고 있는 데다 적성도 맞아서였는데 행정고시에 빠지게 된 한 실마리가 되었다.

2. 뜻 세움

7급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노동부에 근무하면서 방송강의와 출석수업을 통해 열심히 공부했는데, 최초의 방송대학 학사과정 졸업생이 된다는 자부심이 대단했고, 배우는 즐거움이 꿀맛 같았다.

이때 열심히 공부해서 정규대학생보다 훨씬 앞서서 실력을 갖추고 최초의 학사과정 졸업식에서 수석을 하고자 했으나 그 꿈은 못 이루었고 본능적으로 잠재한 진하게 살고픈 욕구가 발동하여 막연히 키우던 고시에의 도전을 재촉하게 되었는데 이는 어쩌면 숙명같은 것이었다. 촌놈한테는 미꾸라지가 용(?)되는 가장 공정하고 확실한 제도적 보장이기도 했으므로, 이왕 나랏일을 하려면 책임있는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보람도 클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학교를 밤통대라고 비유하던 열치기 시사만화꾼에 분통이 터져서 보란듯이 고시에 붙고 싶었다. 행시를 택한 것은 행정학이 전공이기도 하고, 수험을 지원할 시간과 물적 자원이 부족하여 속전속결을 해야 할 필요성과 체질상 법보다는 학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3. 신 내림

이렇게 해서 뛰어든 고시마당은 잡히는 것도 하나 없고, 가능성에 대한 한자락의 보장이 없는 데도 신이 내린 듯 그 길을 가야만 했다.

한번 뛰어 든 길이니 끝을 봐야만 했고 무엇보다도 자신광의 약속을 어기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배수진을 치고 임했지만, 이제 생각해 보니 이번에 실패했더라도 결코 고시귀신이 나가지는 못했을 것 같다. 몸이 쓰러질 때까지는 응시자격을 잃을 때까지는 계속 도전했을

것이다. 고시에는 신들리 듯 끄는 그 무엇이 확실히 있었다.

Ⅲ. 겨울보리의 마당

“이 밭에서 자라난 보리 온세계 곳곳에 씨가 되겠네.” 모교인 고창고교 교강의 후렴귀이다. 보리는 엄동의 한철을 추위와 싸워 이겨야만, 인고의 날을 보낸 기쁨으로 없는 이들이 가장 배고픈 보릿고개를 넘기게 하는 귀한 양식이 되는 것이다. 어렵던 시절에 그러한 뜻에서 겨울보리를 좋아했고 겨울보리의 인동의 의지와 봉상의 의미를 배우고자 치기어리게도 스스로 아호를 동맥(冬麥)이라 즐겨 붙였다.

무작정 제27회 행정고시 제1차시험에 도전장을 냈다. 7급공무원시험 준비하던 서푼어치 실력에다 학교에서 들은 것 약간의 평소의 실력과 생소한 과목인 민법총칙만을 한번 읽고 갔는데, 전과목 60점 이상 득점에 평균 68점으로 합격선에서 한참 멀었지만 해 볼만하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그게 병이 되고 말았지만).

다음 해에는 학교도 5학년(그 당시 방통대는 5년제)이 되었고 전공과목도 겨우 맛보기는 한 셈이어서, 행정고시 제1차시험을 위해 두달 정도 동네 독서실에 터잡고 밤과 주말에 무더위와 싸웠는데 제28회 제1차시험에는 평균 05.점이 모자라 불합격이었다. 딱 한 문제만 더 맞췄으면 걸리는건데-그 아쉬움이란.

85년에는 꿈에 그리던 학사모를 아내와 다섯살박이 미리와 함께 쓰는 기쁨을 맞이했고, 석달을 앞두고 제29회 제1차시험을 준비했는데 기본서는 몇 번 보았기에 문제집과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하여 무난히 제1차시험 관문은 통과했다.

막상 제1차시험 합격은 했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부하자니 전과목을 한번 읽는 데도 시간이 절대부족이었으므로, 경험삼아 시험장 구경이라도 해 볼까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으나, 자신의 실력이 너무 부끄러워 고시를 모독할까 두려워 깨끗이 제2차시험을 포기해 버리고 85년은 1차합격과 아들 버리를 얻은 일에 만족해야 했다.

다시 1년의 시간이 주어졌으나 체계적이거나 집중적인 수험공부를 해보지도 못하고, 2차시험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도 기늠하지 못한채, 그저 해야겠다는 만용 하나만으로 처음으로 2차시험에 부단친 제30회의 전과는 처참했다. 두 과목이 과락에 평균은 합격선에서 6점이나 턱없이 부족했는데도 좌절하거나 고시공부 할 자격없는 녀석이란 생각은 눈썹 만큼도 없고, 오기만 더욱 살아나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더욱 굳어지니 이상한 일이었다.

처음으로 고시와 제대로 부닥쳐 본 후에는 자존심이 더 이상 어영부영하는 것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활틀을 혁신하기로 하여 고향이 가까운 전주사무소로 근무지를 옮기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이사하던 날 억수같이 내리는 빗속에서 괴나리봇짐을 꾸리면서 알지 못할 울분과 서러움을 삭였다. 출세하겠다고 올라온 서울, 온갖 짓 다 해보며 세상을 배우던 서울, 선진조국 공무원노릇을 죽어라고 했어도 가진 것 없는 살림은 단칸방 전세값 오르는 만큼을 따를 수 없던 그 서울을 맨주먹으로 떠나면서, 합격해서 다시 보자고 수없이 마음을 다졌다.

적과 나를 대충 알게 되었으니 참패를 겨울삼아 이기는 싸움을 준비했는데 시간관리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 직장과 고시공부를 병행

하자니 토막시간이라도 유용하게 써야 했고, 누구나 똑같은 시간을 쪼개 쓰자니 잠은 죽지 않을 만큼만 자고 근무시간과 생존에 필요한 동작시간을 빼고는 공부시간으로 쓰여지도록 늘 점검했다.

장기간의 수험생활과 함께 직장과 양다리를 걸치다 보니 마음이 풀려 성취욕구가 약해질까봐 아침 운동때는 군대에서 마냥 “하면 된다! 인생은 의지의 투쟁이다! 절대합격! 인생혁명!” 따위의 구호를 외치며 뛰기도 했고, 책상머리에는 男兒立志出 鄉關, 學若不成死不還이나 十年燈下若, 三日馬頭榮 따위의 글귀를 술하게 써 보고 마음을 굳혔다. 역사에 우뚝 선 크신 분들처럼 겨레를 위해 침식을 다하진 못했지만, 밥을 먹어도 고시를 위해 먹고 잠도 고시만을 위해 자려고 마음을 베틀곤 했다.

겨울보리가 그 혹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봄은 꼭 오리라는 희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 인듯.

IV. 막고 품은 마당

고시마당에 발은 들여 놓았으나 늘 시간부족에 허덕이며 시간만 죽이자니 마음만 급하고 되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 어떤 매듭이 필요 했다.

1. 여름 사냥꾼

여름이 좋다. 남들이 다 가는 그 혼한 여름 휴가 한번을 아내와 못 가본 여름이지만, 가진 것 없는 이들이 가장 덜 가난해 보이고, 모두들 휴가가는 혹서기와 혹한기만을 골라 방송 대학 출석수업을 나가 배우는 기쁨을 짜릿하게 맞본 데다가, 시험일정상 꼭 한여름에 치르게 되는 행정고시의 집중적인 시험기간이 바로 여름이기 때문이었다.

아내와 애들 둘과 함께 사는 단칸방 벽장속에서 공부시늬만 내다가, 87년 여름 제31회 제1차시험을 두 달 앞두고 다시 동네 독서실에서 집중적으로 진도를 나갔는데 비지땀을 흘리는 그 방국석에까지 스미는 그해 유월의 최루가스와 함성은 밤중까지 계속되니 밤에만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어찌나 안타깝던지. 제1차시험 직전 6일의 연가를 내서 마무리하고는 광주에서 제1차시험을 치른 후에 후련한 마음으로 되돌아 오는 버스에서 김월하님의 시조창을 들었는데 속이 더욱 후련해졌다. 후에 알아보니 합격은 했으나 턱걸이에 걸렸으니 아찔했다. 운 좋은 놈이란 생각이 들었다.

제1차시험을 치른 후 바로 제2차시험 준비를 알랑하게 한다고 했으나 늘 독서량 부족을 느껴 자신이 없기도 했지만, 답안지에는 기고만장하게 자신감을 갖고 몸부림을 쳐 보았으나 결과는 역시 경제학, 정치학 과락에다 평균도 턱없이 4점이나 부족했다. 워낙 듣고 본 것이 적은 데다가 절대독서량 부족에 체계적인 공부도 수험정보도 없었으니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제 정말 큰일이었다. 처음에는 살금살금 공부해서 직장이나 주위에서도 방통대학 공부하는 줄은 알았으나 고시공부하는 줄은 몰랐었는데, 어느새 소문도 많이 나서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 솔단지 따로 걸고 살림 나간지 8년묵은 살림코라지는 그대로 그꼴이요, 몸은 축이 나 직장에서도 집안에서도 사람노릇 못하게 생겼었다. 무엇보다도 오랜 동안 간장병으로 고생하시는 아버님 생전에 고시합격을 바치고 싶었는데 그 약속을 못지켜 한이 될까 두려웠고, 낙방했다는 전화 받으시며 짠해하시는 부모님께 참말로 면목이 없었다.

목표는 제32회 행정고시 제2차시험 합격. 공격개시일은 8월 17일.

1988년 1월 1일 올림픽맛이 달리기를 하고 나서 세부학습계획을 후보계획으로 짰는데, 거대한 실패를 반복할 수는 없기에 전과목의 회독수를 늘리려고 빠듯한 일정을 짰다. 계획의 실천여부와 공부진도를 매일 일기 끝에 적었다가 주말에는 주간계획과 실적을 따지기로 했다.

1단계는 자료정리를 하면서 정독으로 4월 말까지 전과목을 1회독 하고, 2단계는 1주일 한 과목을 보는 속도로 7월 중순까지 다시 2회독씩을 보태고, 나머지 한달은 목차암기와 초속독 훑어보기의 계획에다가 매주 일요일에는 실제시험 시간대에 맞춰 두과목씩 모의고사 연습을 하기로 했다.

어설피게 고시공부한다고 많은 날을 끌었지만 공부답게 계획적으로 해 본 것은 처음이었고 계획대로 진도를 따라가려고 애썼는데 잘 실천한 셈이었다. 근무시간을 빼고 밤과 주말시간으로 계획을 다 따르기에 힘은 부쳤지만 어쩔 수가 없었으며 시간부족은 집중력으로 메꾸었다.

다시 마지막 여름사냥을 나서야 했고 이번에는 큰맘 먹고 직장에서 배려받고 연가를 활용하여 시험 한달반을 남긴 7월 1일에 난생 처음으로 전주시내의 승암사에 책보를 싸들고 가서 공격진지를 구축했다. 고시공부하면서 절간이나 고시원 간다는 애긴 많이 들었으나, 모든 것 떨치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내게도 주어졌다니 꿈만 같았고 행복하기까지 했다.

매일 일기에다 학습시간과 죽은 시간을 기록해 보았더니, 죽어라고 해대면 하루 17시간까지 공부 가능했다. 그렇게 개발에 탐나게 열심히 한적도 처음이어서 그 성취감이 또 환장할 만큼 좋았다.

2. 불꿈

무미하고 기약없는 수험생활에는 합격에 대한 확신과 목표에의 의미부여가 늘 필요했다. 나는 천성적으로 세상일을 좋게만 생각하므로 합격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을 의식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최면술, 마인드컨트롤, 명상법 등을 책을 통해 흥내도 내보면서 홀로 수련도 해 보았다.

나의 합격의 확신은 불꿈이었다. 7급시험 마무리 공부할 적에 꿈에 큰불을 보았는데, 불꿈을 꾸면 재수 좋다는 말이 있더니 합격했다. 그후에도 집중적인 시험공부기에는 잠자리에 들면서 불꿈을 청하곤 하는데 신통하게도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책갈피에도 觀火라고 써놓고는 내 합격은 불을 보듯 확실하다고 일부러 믿고 기대하고 바랬다. 제31회 제1차시험 합격 전에도 시골에 있는 방장산이 불타는 꿈을 꾸었는데 잠자리에 들며 제갈공명이 동남풍을 빌듯 간절히 불꿈을 청했더니 고향집 헛간채가 온통 불길에 쌓이는 것이 아닌가?...

시험장소가 공고되었는데 불광중학교였다. 이제 정말 합격하겠구나 싶은 안심이 드는 것은, 불광등이 내가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첫살림을 붙인 곳인 데다가 7급시험공부할 때는 바로 불광중학 옆길로 해서 선림사쪽 약수터길을 새벽마다 “악이다! 깡이다?”를 연발하며 달렸던 곳이기에 하늘이 나와 인연있게 하는 장소라고 자위했다. 미신같은 이야기로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나는 수험번호든 시험장소든 뭐든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일이 자신에게 좋을 것이며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된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역시 자신의 사고와 행동과 기분에 의해 영향받고 한정되기 마련이니까.

4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처절한 백병전을 치렀다. 첫째시간 국민윤리의 老莊思想은 의외였으나 쓸 수 있는 대로 쓰고 나니 후련했고, 오후 행정법을 치르고는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어 더욱 욕심이 나기에 잠은 두시간 정도씩만 자고 버티냈는데도 정신은 맑았다.

매일 공부시작할 때나 모의고사 연습직전에 제2차시험에서의 「기본행동프로그램」이라고 나름대로 정한 몇가지를 늘 암시해 두었고 그대로 행해지도록 연습했는데 몸에 배게되어 잘 지켜졌다. 그것은 여러 합격기에서 들은 것을 종합한 것인데 ①시험시작 전 눈을 감고 심호흡하며 삼지법, 정신통일을 한다. ② 방이 걸리면 문제를 천천히 세번 읽은 후 옮겨 적는다. ③ 내가 출제자가 되어 문제의 의미와 비중을 생각한다. ④ 목차구성시에 논리적 일관성과 독창성을 생각한다. ⑤ 관련된 전문용어와 학자명을 열거해 두자. ⑥ 서론에는 what, why, how를, 결론에는 현실과 발전방향을 생각한다. ⑦ 소제목까지 목차만은 정서하자. ⑧ 어깨와 손은 긴장하지 않는다. ⑨ 내가 쓰고 있는 답안은 합격점을 받는 모범답안이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둘째날, 셋째날도 젖먹던 힘까지 다 내어 최선을 다하려 애쓴 덕에 네째날 정책학을 치르고는 정말로 후련한 기분으로 하행선 열차를 타면서 밀린 잠을 채우려 했으나 들뜬 마음에 한눈도 붙일 수가 없었다.

학습계획표에는 8월 20일 마지막 시험시간에 쓰러져도 좋다고 적었는데 쓰러지지 않고 살았다.

3. 이무기론

시험 다음날부터는 직장일에 문혀 정신없이 지냈다. 시험직후에 합격하리라던 자신감은 발표날이 다가올수록 사라지고 불안감만 커졌다. 제2차시험 발표 전날 考試界에 전화하려다가 그만두고 뜬눈으로 새웠는데 셉계에 당직서던 동료가 신문보고 전화해 주어 합격을 확인했다. 없는 선비집에 시집와 찌들어 지게 고생만한 안내와 오랜만에 크게 한 번 웃었다. 부모님께 전화 올리며 난생처음 기쁘게 해드린 것처럼 기뻛고, 며칠 후 마침 남매제가 있어 피붙이들이 모이게 되어 봉고제는 못드렸어도 선영에 성묘올리면서 음덕에 감사드렸다.

고시합격이 주는 것과 앗아간 것은 무엇인가? 흔히들 득실을 합하면 영이라고도 한다지만, 얻은 것은 갈수록 더욱 커지게 하고 잃은 것은 세월에 실어서 체감되도록 애쓸 일이다. 무엇보다 남은 일은, 자식 용되도록 비는 일을 삶의 낙으로 아시고 사신 어머니님 용고개택에게, 아우의 식귀마냥 용은 못되고 살모사되어 어머니님 가슴팍만 물어뜯던 자식이, 아버지께 자그마한 기쁨드린 일이었으니 확실히 남은 장사였다.

고시마당에 뜻을 두고 능히 이룰만한 재주 뛰어나건만 없는 집안 장남노릇하느라 공부도 한번 제대로 못한 정형이 “나는 고시 이무기여. 그러나 자내는 용이 되어야 혀!”라고 나를 매번 격려하고 밀어주었다.

그러나 형! 남 잘되길 빌어 주고 베풀며 사는 삶이 용 아니겠소. 제 분수 모르며 교만하고 자만하며, 작은 것 뽐내는 일, 남의 눈에 눈물내는 일이 이무기 아니겠소.